

'독보적 여성 솔로' 선미, 신곡 '보라빛 밤' 컴백

10개월 만의 컴백...몽환 시티팝 장르

선미 작사 · FRANTS 공동 작곡

독보적인 여성 솔로 아티스트 선미가 신곡으로 돌아온다.

선미는 29일 오후 6시 새 싱글 '보라빛 밤 (pporappippam)'으로 컴백했다.

이번 '보라빛 밤 (pporappippam)'은 지난해 8월 발매한 '날라리 (LALALAY)' 이후 약 10개월 만의 컴백이다.

'보라빛 밤'은 고혹적인 상상을 자극하는 사랑에 대한 곡이다.

선미가 자신이 꿈꾸는 사랑에 대한 단편들을 곡을 통해 몽환적으로 풀어냈다.

뜨거우면서도 아련하고 한편으

로 지나고 나면 허탈할 수도 있는 사랑의 모든 면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시티팝 장르의 곡이다.

이 곡은 선미가 직접 작사를 맡았으며 '사이렌 (Siren)' '날라리' 등 전작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 바 있는 FRANTS와 함께 공동 작곡을 했다.

곡 전반을 주도하는 평키한 사운드와 함께 솔로 기타리스트 적 재의 기타 리프가 인상적인 '보라빛 밤'은 리드미컬한 비트와 대중성 있는 멜로디 라인으로 여계를 들뜨이게 만든다.

또한 '보라빛 밤'은 적재 이외

에도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사랑을 꿈꾸는 선미의 고혹미를 극대화시키는 드레시한 컨셉 의상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케빈 제르마니에 (Kevin Germanier)가 선미만을 위해 제작했다.

이어 'FantazyLab'의 김지용 감독이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영상의 연출을 맡아 몽환적인 색감으로 영상미를 극대화했으며, 스트리트 댄서이자 안무가인 이이정이 안무에 참여해 눈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완성했다.

선미는 29일 오후 7시부터 팬들을 위한 온라인 팬 쇼케이스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역대급 대규모'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동영상 공

유 플랫폼 틱톡(TikTok)을 통해 '보라빛 밤' 켈린지를 시작했다.

'보라빛 밤' 노래에 맞춰 변신하는 모습을 담은 '보라빛 밤' 켈린지는 오는 7월8일까지 틱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미는 소속사 이적 후 '가시나' '주인공' '사이렌'으로 이뤄진 3부작으로 연속 흥행에 성공하며 '솔로 퀸'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과격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장악력, 확실한 컨셉트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선미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담은 음악으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곡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뉴스 1



세븐틴 '헝가래' 초동 109만 돌파...밀리언 셀러 등극

자체 최고 기록...올해 아티스트 초동 판매량 2위



지난 22일 발매한 세븐틴의 미니 7집 '헝가래'는 국내 최대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 기준, 초동(발매 일주일간 판매량)

109만 7891장을 돌파하며 밀리언 셀러에 등극했다. 이는 세븐틴의 자체 최고 기록이자, 올해 전체 아티스트 초동 판매량 2위 기록이기도

하다. 데뷔 이후 꾸준한 성장 행보를 보여왔던 세븐틴은 데뷔 앨범인 미니 1집 '17 CARAT' 판매량의 약 100배 성장 수치를 기록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현재 초동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한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이 유일하다.

또한 한터 차트에 따르면 '헝가래'는 음반 주간 차트(22일~28일 기준)에서 1위를 차지, 단일 앨범으로 정상에 우뚝 서며 '밀리언 셀러' 자리를 확고히 했다.

앞서 세븐틴은 미니 7집 '헝가래'로 발매 4일 만에 89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전차 초동 판매량을 가뭇히 넘어섰고 5일 만에 101만 장 이상을 쾌속 돌파하며 밀리언 셀러에 등극하며 대기록을 세웠다.

더불어 세븐틴은 타이틀곡 '레프트 앤 라이트' (Left & Right)는 물론 수록곡까지 발매와 동시에 국내 주요 음반 차트와 해외 아이튠즈 차트, 빌보드 재팬, 중국 QQ뮤직 케이팝 차트 등 전 세계 차트 최상위권을 휩쓸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방구석1열' 하차 정재형x장윤주 "새로운 꿈 열어줘 고마워"



JTBC '방구석1열'의 MC 정재형과 장윤주가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그동안 함께 한 소감을 전했다.

정재형과 장윤주는 지난해 10월 '방구석1열'에 합류해 '절친남매'의 컨셉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했다. 기존 멤버인 장성규와도 3MC 체제로 찰떡호흡을 자랑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5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방구석1열'을 떠난다.

정재형은 영화음악 제작 경험을 살려 새로운 시선에서 영화를 분석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정재형은 '방구석1열'을 떠나며 "영화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

다. 앞으로 좋은 앨범으로 찾아 뵙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장윤주는 영화에 대한 애정과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장윤주는 "좋은 영화를 함께 나누는 건 참 행복한 시간이다."

덕분에 좋은 영화도 많이 알게 되고 몰랐던 이야기까지 배울 수 있었다. 다시 영화 학도가 된 것 같았다"라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또 "방구석1열"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열어준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어렵게 자리를 떠나지만 오래 좋은 영화 이야기 많이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봉스타'의 새로운 시작도 기대하달라"고 당부부 전했다.

오는 7월12일 방송 후부터는 배우 봉태규가 MC로 합류해 '방구석1열' 3대 회장을 맡는다.

김태우 '나를 사랑한 스파이' 출연 확정...문정혁과 호흡

스릴만점 시크릿 로맨틱 코미디...10월 중 방송 예정

배우 김태우가 '나를 사랑한 스파이' 출연을 확정 지었다.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29일 "배우 김태우가 MBC 새 수목 드라마 '나를 사랑한 스파이' (극본 이지민/ 연출 이재진) 캐스팅을 확정지었다"라고 밝혔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는 비밀 많은 두 남편과 첩보전에 휘말린 한 여자의 스릴만점 시크릿 로맨

틱 코미디다.

앞서 문정혁 유인나 임주환 등의 출연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극 중 김태우는 인터폴 산업기 밀국 아시아총괄 국장인 반국장 역을 연기한다.

반국장은 오랜 경력으로 상황과 사람을 캐치하는 능력이 동물적으로 뛰어난 경찰청 외사국의 베테랑으로 설렘설렘 농담 투의 말투

에도 핵심을 꿰뚫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극 중 전지훈(문정혁 분)과 는 티격태격 하면서도 훈훈한 케미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김태우는 최근 tvN 새 드라마 '철인왕후' 캐스팅 소식 이후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도 합류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나를 사랑한 스파이'는 오는 10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이효리 "‘효리네민박3’는 없을 것...집공개 후 힘들었다"

가수 이효리가 인기에 방영된 '효리네 민박' 시즌3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리는 지난 2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제주도의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근황을 공개했다. 또 팬들의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서 소통했다.

한 누리꾼은 '효리네 민박3'를 언제쯤 볼 수 있냐고 물었다. 효

리네 민박'은 지난 2017년, 2018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효리의 집은 물론 일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효리는 "시즌3는 어려울 것 같다. 집이 공개되고 조금 힘들었다. 집은 나와 오빠와 개들의 안락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공개되고 나니 그 부분이 힘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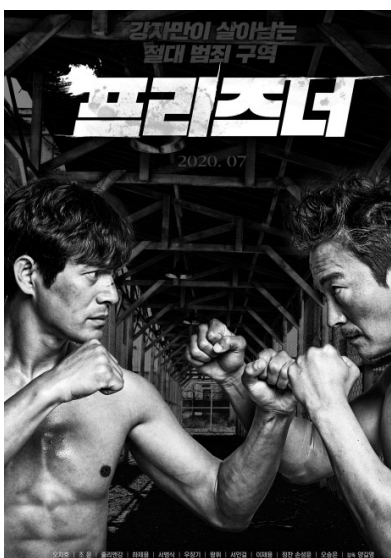
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효리는 '효리네 민박' 방송 이후 집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등 사생활 침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어서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같은 이유로 시즌3는 없다고 밝히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효리는 MBC '놀면 뭐하니?'의 여름 댄스 특집을 통해 혼성그룹 '썩썩' 멤버로 발탁돼 데뷔를 준비 중이다.

'올드보이' · '괴물' 무술 감독 연출 데뷔작 '프리즈너'

7월23일 개봉 확정



액션 영화 '프리즈너'가 7월23일 개봉을 확정했다.

29일 (주)영화사피어나에 따르면 '괴물' '올드보이' 등 다수의 영화에서 무술 연출을 도맡았던 양길영 감독과 오지호, 조운, 정찬, 이재용, 줄리엔강, 하제용 등 화려한 배우진의 만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액션 영화 '프리즈너'가 7월23일 개봉을 확정했다.

'괴물' '올드보이' 등 다수의 작품에서 놀라운 무술 연출로 세계적 인정을 받은 양길영 감독의 연출 데뷔작 '프리즈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죽인 범인을 쫓다 감옥까지 들어간 형사가 진범을 잡기 위해 참가하게 된 무자비한 교도소

살인 격투 게임을 그린 액션 영화다.

이번에 개봉일 확정을 기념하며 최초 공개된 스포셜 포스터에서는 아내가 죽은 이후 상심한 나머지 범인 검거 도중 용의자를 총을 쏘 버리고 교도소 격투 리그에도 자신 참가한 전직 경찰 신세도 역을 맡은 오지호와 교도소 격투 리그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청부살인업자 이인규 역을 맡은 조운 두 사람이 서로를 강하게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포스터 상에서도 확연하게 느껴지는 두 사람의 강렬한 카리스마는 극중에서는 어떤 상호작용을 빚어 낼지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그를 마마무 화사가 데뷔 첫 번째 미니앨범 '마리아' (Maria)로 컴백한다.

화사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앨범 '마리아'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돌입했다.

동명의 타이틀곡 '마리아'는 무자비한 세상에게 받은 상처를 타인을 향한 미움으로 뱉어내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다시 꿈을 꾸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진

랫말에 담았다.

특히 화사와 RBW 프로듀서 박우상의 협업으로 탄생한 노래로, 한 번 들으면 귓가를 맴도는 중독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음원과 함께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화사의 또 다른 자아를 '마리아'로 표현, 화사가 직접 스토리 기획에 참여해 진정성을 더했다.

유니크한 색감과 연출로 주목받고 있는 VM Project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강렬한 비주얼과 지금껏 볼 수 없던 과격 퍼포먼스를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이외에도 첫 미니앨범에는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인트로 : 노바디 엘스' (Intro : Nobody else)를 시작으로 가슴거리의 주인공으로 만든 너에게 이야기하는 '키딩' (Kidding),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너와 나의 사이에 닿지 않을 미련을 되묻는 '와이' (WHY)가 수록됐다.

또 나도 너와 다르지 않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아임 배드 투 (feat. DPR LIVE)' (I'm bad too)', 캄캄하고 위태로운 불안 속 나를 파스하 안아주는 곡 '엘엠 엠' (LMM), 나만을 바라보던 너를 외면한 내가 '멍청이'였다는 '멍청이 (twit)'까지 총 7개의 다채로운 장르로 가득 채웠다.

이처럼 화사는 풍성하게 채운 완성도 높은 미니앨범 '마리아'로 컴백한다.

'마리아'는 화사가 자신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를 마음 한 칸에서 꺼내어 담은 앨범으로, 타인에게 상처받은 이들에 함께 공감해주고 진심 어린 위안을 건넬 예정이다.

화사만의 애정 담긴 메시지는 물론 유니크한 퍼포먼스까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사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마리아'를 발표했다.